

사설

3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농민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농기계를 꺼내 손질하고, 어민들은 많이 파스해진 봄별 아래서 그물을 손질하며 풍어의 꿈을 키운다. 방학동안 '해물단지' 취급을 받던 아이들도 개학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역 곳곳에 희망찬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봄이 찾아왔건만, 고성지역의 경제적 현실은 거의 변화가 없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보유한다든가 도로사정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대규모 유택시설도 곳곳에 들어섰지만, 지역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경기가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주목받던 금강산 육로관광이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지 벌써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고성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도발 이후 보여준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

지난해 고성군이 관광중단 장기화로 인해 159개의 음식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숙박업소와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585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정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명박 대통령 취임 5개월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 임기내에 어떤 식으로든 재개를 성사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은 새 봄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대학을 방문해 고성군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일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새관망타워는 무료, 해양박물관과 역사안보전시관은 71%, 통일전망대는 5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성지역 콘도미니엄 이용객에 대해서도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면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하고 각 콘도미니엄에 할인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아무쪼록 새 봄에는 지역 관광경기가 확 살아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새 봄 금강산 관광 재개를 꿈꾸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명파리를 비롯한 거진읍과 현내면의 식당 등 관광업소들은 대형 버스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아직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여전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전망대를 다녀가는 관광객이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 마

고성군은 명태산업이 침체된 이후 그나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던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미련을 버리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중단이 이

어제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얇은 상식과 지식을 철학적으로는 지식을 사랑(眞眞; 참함, 善善; 착함, 美美; 아름다움) 얇은 얇은 陰地(음지; 음달)에서 벗어나 陽地(양지; 양달) 경제시장(호경기)엔 웃음꽃 피우고 오가는 사람들은 華辭(화사; 웃는 말)한 얼굴 길거리에는 사람마다 마을마다 사람냄새 나서 살맛나는 고장 고성 이룩하자는 것.

幽棲(유서; 그윽한 터전) 깊고 온화한 '우리 고장 강원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찾아오신 손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맞이하는 일, 접대엔 정성껏 모시는 일이다. 우리 모두 안내자가 되려면 우리 郡(군) 이웃 속초시를 비롯한 양양 인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해안권(9개 圈域; 권역)과 영월 평창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양구 화천 철원 등 秀麗山水精氣(수려산수정기; 경치가아름다움) 9개 권역) 받은 生動感(생동감; 살아숨쉬는 움직임, 8899 장수의 땅)이 넘치는 지역이로다.

수려한 경관 Bule sea(쪽빛바다) '수평선에서 치솟는 희망의 붉은 태양,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이라고, 어서 오시오! 어제를 생각하고 오늘지혜를 실행하며 내일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는 일이다.

Immanuel Kant (임마누엘 칸트)는 갈등에서 표출된 해법, 화목의 이해력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따라 곧 윤리, 도덕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에 준한 행위를 지혜라면, 자기의 행위 품성을 자기양심 내지 사회규범으로서 선한 일과 바른 일을 행하여 악한일과 부정한일을 하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내일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자

지 않는 일, 관습 풍습에 연관하여 정사선악의 표준으로서 인륜의 대도를 지혜이라고 본다.

Shaftesbury and Hutcheson (샤프츠베리 와 허치슨)의 말은 正邪善惡(정사선악)의 지혜는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지니고 있다는 것. Hume and A. Smith(휴머와 아담 스미스)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감각은 양심 이성에 있다는 것이다. 즉 존재와 당위성에 있음은 확실하다 할 것이나 활동하는 행위는 理智的(이지적)이고 理性的(이성적)이로되 이는 참답고 의로움과 힘의 조화에 슬기로운이 출연하게 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실천규범(사회규범)은 선악과 시비 합법 위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관습도덕 법률에 비추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名勝古蹟(명승고적; 이름난발자취)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밝혀 계속 숙지하여 나가기로 한다. 우선 다음 몇 곳을 알아본다. 속초 장사동에 여

름엔 해수욕장 횃집 자 판장 그리고 손으로 오징어 잡기 축제, 민박 인접된 금강 자락엔 울산바위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명성 현대 한화 유락시설 고성 토성 용촌 신평리 세계 청소년 잼버리장과 맑은 물 공기경관이 수려한 화암사에서 해변으로 내려오면 켄싱턴 숙박시설 북으로 인접된 봉포 싱싱한 회, 천진나루터에 해수욕장 횃집 민박 관동 팔경중 하나인 淸澗亭(청간정) 이야진 횃집 숙박시설 해수욕장 찾아오는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방법이 講究(강구; 궁리하고 익힘)되어야겠다. 즉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가 남아 '또 올레' 라는 '살고 싶다' 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회용이 아닌 손님접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건강 365일 간을 지킴이 파수군 忍冬草(인동초; 겨울을 이겨낸 끈기를 상징한 약초)를 소개하기로 한다. 금은등(금은효능 덩굴) 금은목(나무) 수양등(생명수의 덩굴) 원양등 (인간과 더불어사는 덩굴) 인동(어려

움이겨냄 겨울에삶) 좌전등(얕힌 설킨것을 풀어주고 줄 새끼) 노수수(노인수염; 장수의미) 통영초(신통풀) 밀보등(그윽한보상)금차고(정강이끝) 금은화(꽃) 인동경(줄기) 등 특색을 지닌다. (본초강목참조할일) 藥草(약초)의 종을 보전하자!

인동의 자생은 우리나라 산야에 과불나무 땃강나무 땃덩이나무 병꽃나무 인동덩굴 딱총나무 등 40여종 분포(함북제외)중국-북녘 온대지방 일본 열대고온에 10속 400 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약용부분으로 忍冬草(인동초; 음건응달 습기) 雙子葉(쌍자엽; 짝으로 된 잎)을 알아봅시다. 줄기와 잎사귀 한 한약재로서 약효는 寒熱(한열; 추고열남) 利尿(이뇨; 소변이상) 解熱(해열; 열을풀어줌) 風濕(풍습;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병) 各種腫氣(각종종기) 痔疾痛症(치질; 치질로아픔) 腰痛(요통; 허리가아픔) 關節痛症(관절통증=류머티즘) 腎臟炎(신장염; 콩팥염증) 膀胱炎(방광염; 찌꺼기걸음관에염증) 惡性化膿症(악성화농증; 중한고름) 皮膚病(피부병; 피부부스름) 扁桃腺(편도선; 입과 소결절의집단으로편도모양이루고것) 口內炎(내구염; 입안염증) 淨血(정혈;

피를 깨끗하게 작용함) 濕疹(습진; 살갓에 일어난병증) 火傷(화상; 불기타 상처함) 健胃(건위; 위장) 瘰癧(옹저; 등창 악창) 아리작용의 효능 약효제법엔 동의보감 참조간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파수군이요 자연건강식이라 한다. '毒藥이 苦口나 利於病이라.' 독한 약이 비록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다.

◇편집국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긴 겨울 방학을 마친 지역의 꿈나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재개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학원 가기가 싫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투정이 행복한 고민으로만 여겨지는 아이들도 있다.

천진에 있는 '꿈동산' 지역아동센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고성지역에는 현재 5개의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